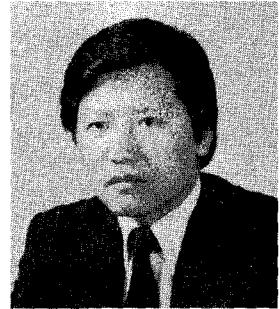


# 양계산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소비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있는 양계 산업은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 유통구조의 문제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는 생산자의 「자주 자립에 대한 의지」를 통해 안정된 방향으로 유도가 가능하다.



허 신 행

(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황소와 양계산업

**요즈음** 농촌에서는 논갈이가 한창이다. 옛날 같으면 소가 끄는 쟁기 뒤에서 소허리를 치며 “이랴, 이랴”하는 농부의 소리가 요란할 때이지만 소 대신 경운기가 많아져 그러한 정경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에 의해서 논밭갈이를 하는 농부가 많다.

논밭갈이에 이용되는 소는 어려서부터 길들여진다. 중소가 되기 전에 코걸이를 끼우고 큰소가 되기 전에는 쟁기를 채워 훈련을 시킨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다 큰 소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소를 순화시켜 농사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속에 소박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성장과정에서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은 것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성장과정과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양계산업이 평범한 진리에서 벗어나 잘 길들

여지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큰 아들이 대체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희생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농업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생산체제로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나의 산업도 인간처럼 성장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닦아야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인데, 양계산업은 생산분야에서만 비대해졌을 뿐 유통이나 소비 측면에서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기형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다.

다 큰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소가 어렸을 때 길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소를 거칠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고기닭이나 달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게을리 해온 당국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제정하고 전통적인 생계(生鷄) 판매를 단속 또는 금지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개선되지 않은 유통구조가 일부 관리들의 단속에 의해서 단시일 내에 근대화될 수는 없다. 사람이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듯이, 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키려면 그것을 둘러싼 구조개선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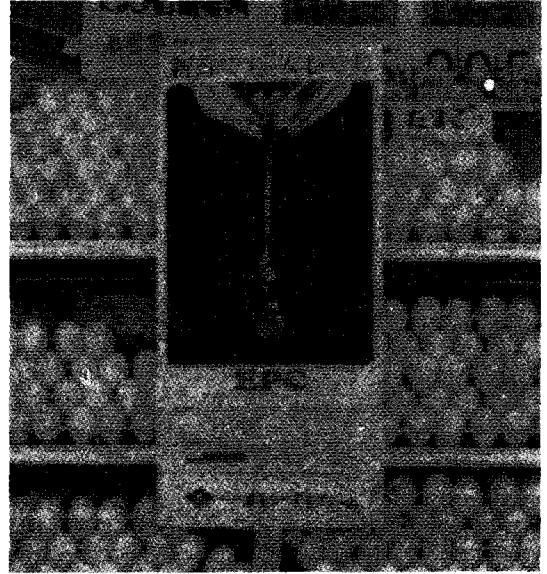
그러나 안타깝게도 길들이지 않은 큰 소의 걸 함만을 탓하여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를 힘센 목동이 회초리로 때리니, 그 소는 참다가 견딜 수 없었던지 뒷발로 옆에 서있는 어린 아이를 걷어 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생계상인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비위생적인 도제 그리고 과도한 유통마진의 수취를 탓하여 서울시가 단속의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죄없는 양계농가들이 손해를 입는다. 생계상인의 유통행위는 길들이지 않은 소위 행위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탓하기에 앞서 왜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원인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사겠다는 서울 소비자의 불신풍조와 생계 선호에 대한 구매행위, 그리고 생계상인들로 하여금 몇몇한 마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서 우리 양계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야 한다.

## 양계산업의 발전 가능성

**필자** 는 현재의 양계산업을 큰 소에 비유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뒤떨어진 유통구조와 소비패턴을 놓고 생산분야를 비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시야를 좀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에 비유될 수도 있다. 특히 소비측면에서 양계산업을 생각할 때 그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2.5kg에 지나지 않고 달걀 소비량은 115개에



△선진국 소비에 비주어 보아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닭고기 소비량은 10kg을 넘고 달걀의 소비량은 300개 정도에 해당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소비인구의 증가로 소비증가 추세는 가속될 것이다. 더우기 돌아오는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을 맞아 외국인들이 소비하게 될 물량까지 합하게 되면, 양계산업은 큰 호황을 맞게 될 것 같다.

닭고기와 달걀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7월 복(伏) 때에 주로 먹던 고기닭이 영양식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거리마다 생기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센터」로 인하여 기호식품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닭고기 소비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텔레비전에서 요란스럽게 선전하는 판매광고를 보면 그 가운데 달걀을 원료로 쓰는 과자 등의 제품이 많다. 이러한 소비패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발전초기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만큼 유

망성이 높은 성장산업이 바로 양계분야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양계산업은 확실히 성숙 단계에 놓여 있다. 양계의 사료효율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부양인구가 많고 땅이 비좁은 국가에서는 양계산업이 안정맞춤인데다 이미 생산의 80% 이상이 전문생산체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수요의 확대에 따라 양계산물의 생산공급을 신속하게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 핵심문제는 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과 유통구조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은 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과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이다. 1주일이나 한 달후의 가격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양계산물의 수급진폭이 심하고, 또 생계판매 단속으로 인하여 언제 체화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마저 드는 것이 우리 나라 양계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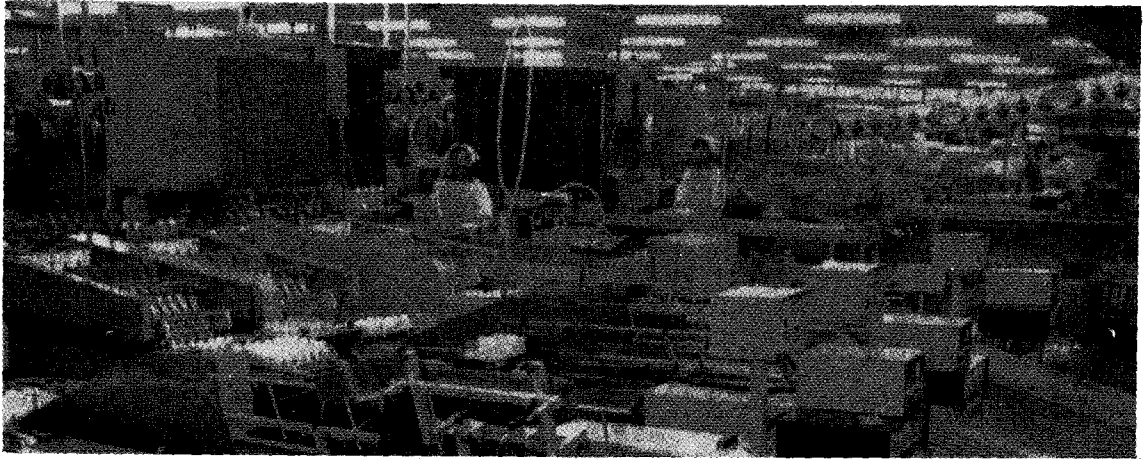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63만 양계농가에 의해서 1년에 10만M/T의 닭고기와 45억개가 넘는 달걀이 생산되고 있다. 누가 이들의 생산을 전지전능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한편 3,900만명의 인구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닭고기나 달걀을 소비하고 있는데 누가 이들의 수요를 조절할 수 있을까. 생산과 소비구조의 방대성을 감안할 때 양계산업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과제는 아니다.

특히 계산물은 단기 대량생산이 가능 한데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축산물 생산이 부족하면 양계산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장점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많은 물량을 생산해서 소비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1978년 이후 지금까지 고기닭과 달걀의 실질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로 수요측 요인으로 인하여 가격의 계절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까다로운 구매행위도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축산물시장 특히 육계시장에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서, 병든 닭이나 죽은 닭을 사서 요리하지 않겠다는 주부들의 집념으로 인하여 더욱 비위생적인 닭이 시장 한 복판에서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민족의 상거래내지 구매행위가 아니다. 물론 생계(生鷄)를 배격할만큼 좋은 도계(屠鷄)가 시장에서 충분히 유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리고 안이하게 관청의 힘에 기대면서 도계장을 설치해두고 수집과 판매망도 없이 도계를 하여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유통구조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하는 자기혁신 없이 도계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양계산업은 발전되기 어렵다.

육계와 달걀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관주도형의 경제체제 아래서도 전근대적인 계산물의 유통구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편협했던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더우기 양계산업에서 오랜 기간 생산활동에 임해온 지도자급 생산자들에게도 근원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이 한테 뭉쳐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유통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양계산업이 생산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책



△충분한 투자없이 양계산업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다. 양계인도 정부당국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임이 사회 각층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양계산업의 안정화 대책

**어느**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이지만 상업적 타산이 맞아야 그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양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양계산물의 수급 및 가격이 일차적으로 안정되어 생산자가 마음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정수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과제가 바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좌우시키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산업이나 어느 국가라 할지라도 성장발전을 하는 데에는 간단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 전제는 바로 「자주 자립에 대한 의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물적 지원을 받고도 패망한 월남의 예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낼 것도 없고 아랍 대국들 속에서 강직하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교훈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나의 산업이나 생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주체자의 「자주 자립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면 성장발전을 거듭

할 수가 없다. 물론 발전초기에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못된다. 그래서 필자는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먼저 이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생산자들의 대표가 한데 뭉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산자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제틀토의하고 대안을 결정하며, 그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요 자유이다.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위해서 등록제를 추진하건 선진국에서와 같이 유통규제를 위하여 「마켓팅 보오드」를 만들건 또는 부화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모색하건간에 그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산자들이 힘을 합하여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개선과 판매 그리고 소비촉진 활동까지 관장해 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에 있다. 「양계산업을 우리 힘으로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준다면 정부도 가만히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대안이 있고 실천의지가 서 있는데 지원기관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필자는 양계인 모두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 먼저 같은 경제권속에 있는 양계인들이 대표를 뽑아 구심체를 만들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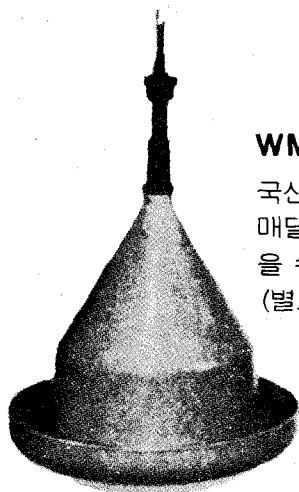
로 하여금 양계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몇 일이 걸려서 토의를 벌인다해도 그것은 가치있는 일이며 학자들이 함께 참여해도 좋을 것이다. 이 모임에서 한국의 현실에 알맞는 양계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양계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가짐으로 이를 체계있게 검토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필요하다면 중간상인이나 도계장 대표들과도 한 자리에 모여 전체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진취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양계산업을 육성해야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공동 운명체적인 자세가 필요

하다.

관계당국도 이제는 구태의연한 단속 일변도의 조치보다 소를 길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넓은 야량과 인내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훌륭한 인물을 기대할 수 없듯이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근대적인 산업의 모습을 바랄 수야 없지 않은가.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1986 년과 88 년의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축산인은 물론 정부 당국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 토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체계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장없는 급수기 MONOF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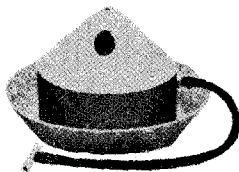
### WM-5

국산보다 20% 크며  
매달거나 바닥에 놓  
을 수 있는 양용.  
(별도 장치 불요)



### 케이지용 님플

플라스틱 파이프에  
붙여 케이지 2 칸에  
한개씩 설치하며 청  
소가 필요없다.



### Mini80

초생추 육추에 최적,  
직가드내에 설치 가  
능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